



부산해양경찰서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3.(목) 16:00	배포 일시	2022. 6. 23.(목) 14:00
담당 부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책임자	과 장 이남희 (051-664-2048)
		담당자	계 장 배소환 (051-664-2148)

풍랑·호우 때는 연안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세요!**- 부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발령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23일 밤사이 부산앞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어 많은 비(10~70mm)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풍속 14m/s, 최대파고 3m의 강한 바람과 파도, 안개가 예상됨에 따라, 부산지역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령,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 안전사고 대비와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여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자·어업인 대상 안전조치 당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중심으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언론보도와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6일 부산지역 풍랑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 충무동 방파제에 계류 중인 어선의 훗줄이 터져 인근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을 해상 순찰 중인 부산해경 남항파출소에서 발견, 신속하게 훗줄을 보강하고 선장에게 연락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부산해경은 “오늘 밤부터 부산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을 넘을 수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 선박 등은 접안, 계류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드린다.” 며, “부산해경은 긴급 대응태세 유지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